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비유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핵심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목회생활을 최소한 30년 정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유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자격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던 때에 비유에 대해 가르쳤던 것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비유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공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내용이라고 확신 있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단지 제가 이해하게 된 부분과 제가 믿게 된 것뿐입니다. 앞으로 비유에 대한 저의 이해가 계속 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비유에 대해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산상설교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놓고 해변가에 있는 작은 배에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13:3-9)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13:18-23)

여기에서 밭은 이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세계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이 중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습니다. 새는 마귀를 의미한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마귀가 즉시 와서 뽑아버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즉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말씀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번째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큰 감정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들은 곧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어야 될 비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그들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함께 자랍니다. 결국 가시떨기가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 외의 세상적인 영역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한 짐이 너무 무거워 넘어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해석의 불변성’이라고 불리는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해석학에서 쓰이는 신학적 용어로서 이 법칙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말씀에서 어떤 특징을 상징하는 것은 다른 말씀에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밭이 세상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주님의 비유에서도 밭은 세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씨앗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일과 관련이 있는 다른 비유에서도 씨앗을 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의 불변성’이라는 법칙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후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10)

확실히 이것은 새로운 방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13:11-16)

예수님은 왜 비유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든지 단지 그의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때 우리들은 흔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예로 들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함으로써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곧 그들의 귀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로 사용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그 내용이 전해지는 동안 진리가 전달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로 든 비유와 전하고자 하는 진리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유의 목적은 결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드심으로써 그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귀는 둔하고 눈은 소경 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진리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13:17)

가라지 비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13:24-25)

여기서 뿌려진 것은 좋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씨가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13:26-30)

이 비유는 교회가 하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 되지는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진리 아닌 것, 즉 거짓이 일어나서 곡식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자라서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뽑아버리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도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가라지로 인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뽑기를 바라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13:31-32)

대부분의 나물은 매우 작습니다. 창가에 조그만 상자를 놓고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자라면 모든 나물들 중에서 가장 큼니다. 사람들이 기르는 나물들 중에서 가장 큼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특별한 겨자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라서 나무가 되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맨 처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미약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복음이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여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복음의 영광스런 영향력도 전파됨에 따라 큰 나무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해석의 불변성’이란 법칙에서 볼 때, 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은 악한 자, 즉 사단으로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을 뽑아버려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자입니다. 해석의 불변성의 법칙에 따라 이 주해적 일관성에서 새들은 언제나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서 하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가라지가 있으며 이것은 곡식과 함께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똑같은 것을 좀더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여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즉 인간이 억지로 조작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것이 모든 악한 의도를 지닌 것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종종 악한 목적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13:33)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천국이 누룩과 같이 적은 분량만으로도 전체의 덩어리에 스며드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밀가루 반죽과 함께 섞을 때에도 이전 반죽의 마지막 한 조각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한 조각은 이미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 반죽에 넣으면 덩어리 전체에 누룩이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도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서서히 그 영향력이 커져서 전세계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서서히 퍼져 전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미약했음지라도 전세계를 뒤흔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계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병들고 매일 더 타락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앞의 해석에 동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 의미, 즉 죄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9)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해석의 불변성의 법칙에 따라 누룩은 언제나 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란 것, 그 자체가 실제로 썩어 변질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덩어리에 스며들어 부패하게 하며 썩게 합니다. 해석의 불변성에 따라 두번째 해석을 해 보면, 예수님이 일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줄곧 같은 진리를 예증하시며, 또한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결국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누룩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누룩의 영향이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교회에 들어오게 된 바빌로니아 종교의 영향을 말합니다.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이교도의 세계를 기독교에 들여와 통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교도의 명절 의식과 축제들을 당시의 교회에 들여왔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 이교대 바빌로니아의 신비주의적 종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독교와 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례는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13:34-37)

해석의 불변성에 따라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하여 봅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13:40-43)

가라지들은 함께 자랄 것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변질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모두 뽑혀 불살라질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네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13:44-46)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보화와 같고 한 번 발견만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밭을 삼으로써 보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값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살 필요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석불변성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화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구약의 룯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밭을 무르는 당시의 전통적인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 보아스가 신부를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오…”(룯 4:4)라고 말하며 밭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밭을 사는 자는 룯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여야 하기에 그는 보아스에게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함으로써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들은 내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값을 치르시고 사심으로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사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13:45-46)

이 비유에서도 진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취하는 장사꾼의 비유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사야 하는 진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파신 분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13:47)

여기서 바다는 역시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13:48-52)

우리는 오래된 진리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발견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13:53-58)